

'전북기능경기대회' 4~8일 개최

직종별 지역 우수한 숙련기술인 발굴... 전주공고 등 도내 8개 경기장서 개최 산업용드론제어 등 33개 직종 · 242명 출전... 22개 직종 학생선수 124명 참가

'전북기능경기대회'가 4월 4일부터 8일까지 전주 등 8개 지역 전주공고 등 도내 8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전북기능경기대회는 직종별로 지역의 우수한 숙련기술인을 발굴하고, 지역 내 기술·기능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며, 전북 지방대회는 올해로 52번째를 맞았다.

참가하며, 이들 중 전주공고를 비롯해 도내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16개교에서 22개 직종에 학생선수 124명이 참가한다. 특히, 최근 변화하는 산업 경향을 반영해 추가된 산업용 드론제어 종목에 10명이 출전하는 등 이목이 집중된다. 도는 정부 방역지침을 고려해 개최식과 별도의 부대행사 없이 직종별 기술 경기 중심으로 대회를 진행한다.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 마스크 착용 및 수시 발열체크와 참가 선수 간 간격유지 등 세부적인 대회 방역지침을 마련했다. 선수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사전에 공구, 안전장비, 작업복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상 유무 확인 후 경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회 입상자에게는 직종별로 금메달 60만원, 은메달 40만원, 동메달 25만원

의 상금이 주어지며, 전국기능경기대회(9월중 경남) 참가자격을 부여한다. 또한 해당분야 기능사 자격시험 면제 및 산업기사 필기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전북기능경기대회를 통해 총 528명이 전국대회에 출전했으며, 이들 중 75명이 입상한 바 있다. 김용만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숙련기술인은 전북도의 경제·산업 발전을 이끄는 소중한 자산이다"며 "도는 계속해서 숙련기술인 육성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성기자 · 장은성기자

"일본 정부 역사왜곡 멈춰라"

강제연행 삭제 등 왜곡된 역사 담은 교과서 검정 통과 서거석 교육감 예비후보, 후보자들에게 공동 대응 제안



서거석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특히 일본이 왜곡된 역사를 담은 교과서 검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전국의 모든 교육감 후보에게 공동 대응을 할 것을 제안했다. 서 예비후보는 지난날 31일 "일본 정부가 '종군 위안부'나 '강제연행' 등의 표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등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다"면서 "각각적인 시정과 사과를 촉구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검정한 교과

서에는 최근 고등학생 2학년 이상이 내년부터 사용하는 사회과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연행' 등의 표현을 모두 '동원'으로 수정하고 '일본군 위안부'의 경우 '위안부'로 고쳐 쓰도록 했다. 특히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과 함께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서 예비후보는 "왜곡된 역사 교과서로 교육받은 학생들은 잘못된 역사관에 갇히게 될 것"이라며 "이는 세계 평화와 공존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서 예비후보는 특히 "일본은 역사 왜곡과 우리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멈추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도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은성기자

"전국 1등 진로·진학·직업교육 만들 것" | 황호진 교육감 예비후보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인 황호진 전 전북부교육감은 지난날 31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진로·진학·직업교육 정책을 발표했다. 황호진 전 부교육감은 "우리 교육환경은 입시와 성적에 갇혀있고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까와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못한 실정이다"고 지적하면서 "이제 그 어떤 교육보다도 진로·진학·직업교육에 집중해, 모두가 부러워할만한 전국 1등 진로·진학·직업교육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인 황호진 전 전북부교육감은 지난날 31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진로·진학·직업교육 정책을 발표했다.

는 실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움직이는 진로 진학 상담버스 '드림온'도 선보였다. 그는 "진로진학 상담은 학교 내 딱딱한 환경에서 이루어져 개별 학생과의 깊이 있는 대화와 상담이 부족하고 형식적으로 머물러 있다"며, "대면 상담실, 심리 검사실을 마련한 진로진학 상담에 최적화된 형태로 개조된 진로 움직이는 진로진학 상담버스 '드림온' 운영

전북진로진학정보센터의 '교육과 상담' 기능 확대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순창 발효식품 마이스터고, 익산 식품가공 마이스터고 등 지역산업·자원과 연계한 학교재편과 신규 설립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AI,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 기술중심의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낼 수 있도록, 지역산업 연계와 지역대학 개설과목 이수기회를 제공하고 전북을 대표하는 지역 미래산업인 신재생에너지, 자율주행, 수소자동차 등과 관련한 학과 개편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분당 한국집월드, 잠실 키자니아와 같은 '전북집월드'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설립하고 'AI 진로 체험관'을 구축 운영에 수많은 진로·진학·직업과 관련된 컨텐츠를 제공하는 진로직업체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진로·진학 전담인력 대폭 증원 확대 ▲움직이는 진로진학 상담버스 '드림온'을 운영 ▲외부 전문 대입컨설턴트 활용 ▲전북진로진학정보센터 '교육과 상담' 기능 확대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지역산업·자원과 연계한 학교재편과 신규 설립 추진 ▲직업체험관 '전북집월드' 설립과 AI 진로체험관 구축 등의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황 전 부교육감은 "진로·진학 전담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교과담당 선생님이 진로와 진학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어 지도역량, 지도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고 꼬집으며, 진로진학 전담인력을 대폭 증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농어촌지역과 작

지역산업 연계·지역대학 기설과목 이수기회 제공 신재생에너지 등 연관 학과 개편도 약속

진학 전용 상담버스 '드림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황 전 부교육감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교육부 학교정책실 교원정책과장, 주OCD 대한민국의대표부 교육관,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을 거친 현직형 교육전문가로, 국가교육정책 개발과 다양한 교육현장 경험을 갖춘 미래교육 시대의 준비된 책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장은성기자

'서거석 펀드' 2시간 만에 마감

오늘 오전 9시부터 · 3억원 목표 2차 모집 예정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서거석 펀드'가 출시된지 2시간 만에 목표액을 초과 달성해 마감됐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지난 31일 오후 2시에 오픈한 펀드가 당일 오후 4시에 5억1010만원을 모집해 1차 목표액(5억원)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서 예비후보는 1차 펀드 조기 마감과 관련해 "교육감 선거에 대한 뜨거운 관심 속에서 1차 펀드 모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면서 "펀드 투자에 참여해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처럼 서거석 펀드가 조기 마감됨에 따라 3억원을 목표로 2차 모집을 4월 1일 오전 9시부터 진행할 계획이

다. 모집은 1차와 마찬가지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인터넷 사이트(httndkr/sqs0601)에 접속한 뒤 회원 가입 후 '서거석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에게 투자하기'를 선택하면 된다. 투자는 약정서 동의와 함께 내용 입력 후 계좌로 투자금액 송금하기를 눌러면 된다. 펀드 투자액에 대해서는 연 3%의 이자를 적용해 오는 8월 2일경 상환할 계획이다. 서 예비후보는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실현해 전북교육의 대전환을 이끌어 낼 증거펀드인 펀드는 일찍이 사용한 뒤 입금과 이자에 대해 활짝 웃는 학교의 행복까지 더해 돌려 드리도록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학습동아리 지원

자기개발·디딤돌분야서 15팀 선정... 8월까지 신청 접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교육공무직원들에게 공간과 소통의 장 마련 및 노후우 공유 등으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학습동아리를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자율적인 연구·학습을 통한 자기개발과 업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2년 교육공무직원 학습동

아리 운영 계획을 안내하고, 오는 4월 8일까지 학습동아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또 창의적인 연구와 학습으로 업무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 중심의 개인별 지식 및 노하우 공유를 목적으로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실현가능성 ▲동아리 활동 경험 있는 자경력(3촌이내) 회원 비율 ▲자기개발(업무전문성 향상, 다양한 활동) 기회 제공 여부 등을 평가해 자기개발과 디딤돌을 2개 분야로 총 15팀을 선정, 4월 14일 최종 선정팀을 발표할 예정이다. 학습동아리는 업무 이외의 단순 친목 위주 소모임 및 영리추구 목적, 봉사활동 등은 공모 주제에서 제한된다. 선정된 동아리에는 4월중 1차 활동비로 120만원을 지원하고, 중간평가를 통해 7월중 2차 지원금 3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자녀에 운영된 교육공무직원 학습동아리는 9개 직종에서 21명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기개발과 회원간 유대감 향상, 업무역량이 강화되었다"면서 "올해도 활기차고 소통하는 행복한 직장 문화 조성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서거석을 검증하라' 기자회견 일부 내용 수정

서거석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지난 달 29일 전북교육청에서 '교육감 예비후보 서거석을 검증하라'를 내용으로 한 기자회견에서 밝힌 SCI 논문 증가율과 재학생 대학 만족도 평가 발표 연도를 바로 잡겠다고 31일 밝혔다. SCI(과학기술논문색인) 논문 증가율 전국 1위 평가를 받은 연도는 당초 발표했던 2014년이 아닌 2009년임을

정정했다. 또 재학생 대학 만족도 평가의 경우 전국 1위 평가를 받았던 연도가 2012년이라고 서 예비후보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자회견문 내용의 '도덕성 검증'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까다로운 도덕성 검증을 두 차례 아무런 흠결없이 통과하여 총장이 됐습니다'가 맞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입학홍보처장 강석표 교수 임명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 신입 입학홍보처장에 강석표(건축·인테리어디자인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4월 1일자로 입학홍보처장에 임명된 강석표 교수는 충남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우석대에는 2008년 부임해 학교장과 주임교수 등을 지냈으며, 다양한 국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등 대외적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강석표 입학홍보처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엄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라며 "우수 인재들이 대학에 입학해 뜻을 펼칠 수 있게 구성원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전북권역 고교·대학 합동 포럼 개최

고교·대학의 실질적 상호협력 통해 전북지역 재직자 평생교육 체제 구축



전주대학교가 지난날 30일, 재직자 중심의 전라북도 고등교육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고교·대학 합동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주대학교가 지난날 30일, 미래융합대학 주관으로 전북지역 일선 고등학교 진로 담당 교사들과 함께 재직자 중심의 전라북도 고등교육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고교·대학 합동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교육부의 평생교육 정책 변화에 발맞추어 합리적인 대학 입학전형을 신설하고 재직자와 사회인의 대학진학 부담 완화 제도를 도출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전주대학교 기술경영공학과 안성태 교수는 "새롭게 제시된 입학전형에서도 일·학습 병행의 가치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학생들이 관리로서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직무 관련성 높은 교과 과정을 수립해 나가야 하는 것이 무척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전주공업고등학교 류형철 교사

는 "장년 재직자들이 일과 학습을 병행하고 무사히 대학 과정을 마치기 위해서는 대학과 기업체가 재직자 학생들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제도를 운용해야 할 것이다"라고 요청했다. 전주대 미래융합대학 한동승 학장은 "고등학교 일선 현장의 수요를 성실하게 반영하여 학사제도를 개선하고 앞으로 이런 자리를 주기적으로 개최

하여 지역 내 평생교육 체제를 활성화하는 데에 우리 대학이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전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은 전라북도 지역 내 재직자 및 성인학습자가 고등교육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한 학사제도 개선과 지역 내 평생교육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장은성기자

전북교육청과학교육원, 특별기획전

'모든 사물의 역사' 8월 말일까지... 전시체험관 1층 특별기획실서 개최

집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사물'(세탁기, 가스레인지, 드라이어 등)에 대한 과학적 원리와 역사에 대한 흥미를 만나볼 수 있는 특별기획전이 열린다. 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원장 이한규)은 2022 특별기획전 '모든 사물의 역사'를 4월 5일(화)부터 8월 31일(수)까지 전시체험관 1층 특별기획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기획전은 집에서 사용하는 '사물' 2종 및 과학적 원리, 역사 패널 40점이 전시된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우리집 탐험대'가 되어 사물들의 과학적 원리 및 숨은 이야기까지 담고 있어 관람객들에게 과학적 탐구 능력 신장과 함께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별기획전 관람은 오전 10시부터 매일 6회씩(각 회당 40분 체험) 현장 접수로 운영되며, 10명 이상 단체의 경우 과학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장은성기자